

이노아카 VIEW

2023
Vol.01

42서울과 Project-X의 창

INNOVATION
ACADEMY

42

SEOUL



Innovation Academy

01 인사말		3
02 재단 사업 소개	연혁	5
	42서울 소개	7
	Project-X 소개	10
03 심층 인터뷰	조현진 교육생(hyunjcho)	12
	조태식 교육생(tjo)	15
	현대오토에버 재직자 : 김강욱 수료생(kankim), 박초롱 그룹장	18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임현동 매니저	21
04 재단 이모저모	전자신문 기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 SW 인력 양성 변화 필요하다"	25
	한국공학교육학회 학술지 '인재니움'	26
	HRD협회 월간 매거진 7월호 'EDUTECH'	30
	상반기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파트너들	32
	42서울 앰배서더 발대식	33
05 주요 일정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주요 일정(하반기)	36
06 이벤트	정기 프로그램 소개 기업 방문 설명회 / 공간 소개 / 투어 신청	38
	SNS 채널 소개	42



이노베이션아카데미

01 인사말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학장 3



INNOVATION
ACADEMY

이노베이션아카데미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이번 eBook 출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교육 방식과 목표, 그리고 지지와 협력을 받으며 성장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사회적 구성주의 기반 교수 교재 학비가 없는 3무 학습방식으로 학생들이 동료
학습에 기반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혁신적인 교육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현실 세계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키워나갑니다.

디지털 대전환시대에는 소프트웨어가 스마트폰, 자동차, TV, 냉장고와 같은 다양한 기기와 산업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창의적 소프트웨어 인재의 육성은 우리의
사회적 사명이며,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필요한 인재 육성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태계의 확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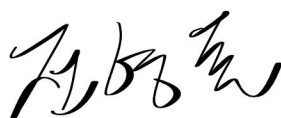
우리 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도전과 과제를 직접
체험합니다. 또한, 산업계와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실제 산업적
요구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eBook 출간은 우리 아카데미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의
노력과 보람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재단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고심의
흔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태계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획, 행사, 홍보 내용들을 함께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비전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노베이션아카데미와 함께 발전하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꿈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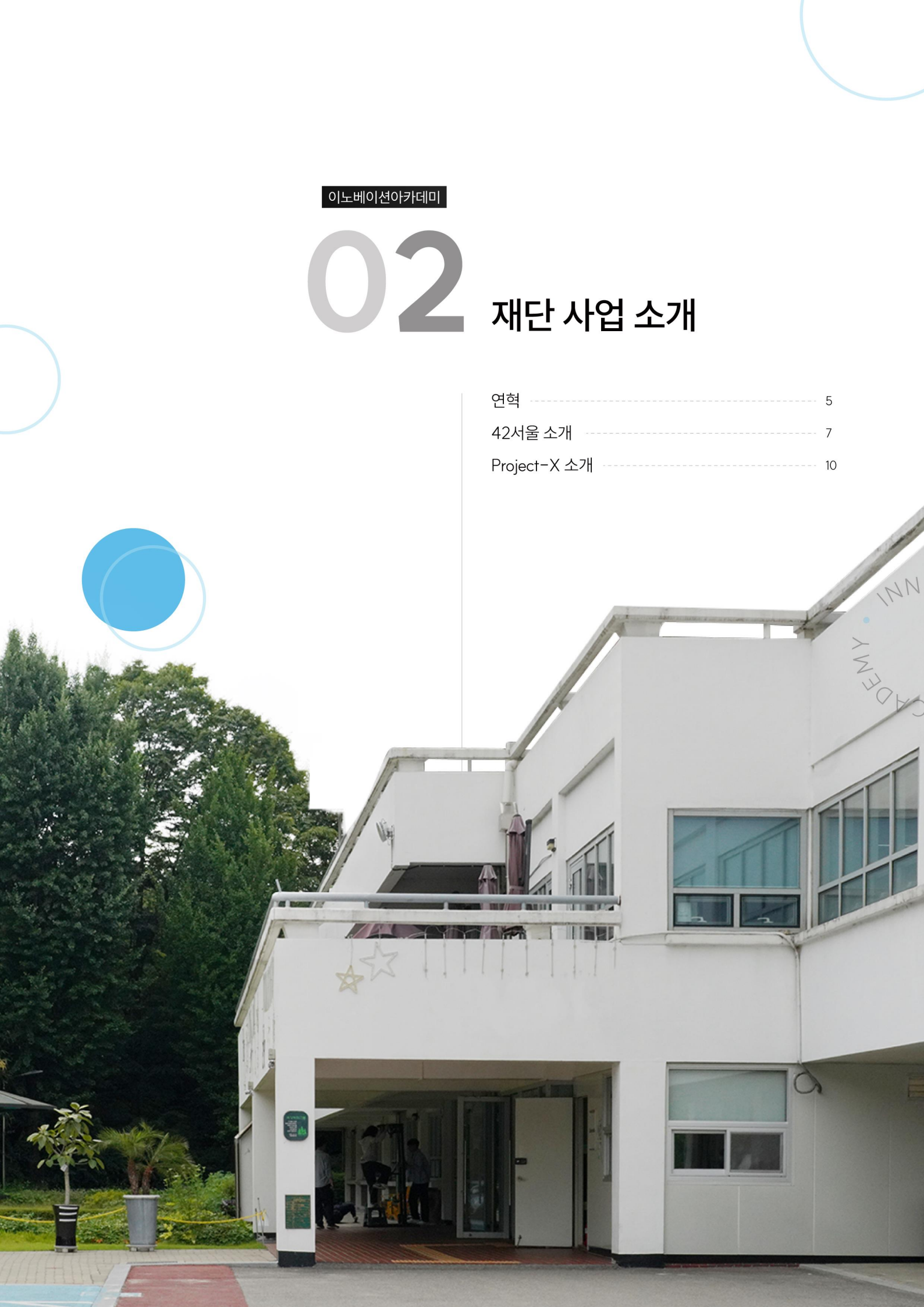
2023.08.16.



이노베이션아카데미

02 재단 사업 소개

연혁	5
42서울 소개	7
Project-X 소개	10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사업 연혁

INNOVATION

2023

3월

42서울 9기 교육생 선발 (200명)

2월

제2대 전영표 학장 취임

2022

12월

제3회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성과 공유 컨퍼런스
(INNO-CON) 개최

11월

42서울 8기 교육생 선발 (250명)

8월

에꼴 42 교장 (소피 비제) 42서울 방문

7월

42서울 7기 교육생 선발 (250명)

3월

42서울 6기 교육생 선발 (250명)

2021

12월

제2회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성과 공유 컨퍼런스
(INNO-CON) 개최

11월

42서울 5기 교육생 선발 (300명)

5월

42서울 4기 교육생 선발 (250명)

2020

12월

- 제1회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성과 공유 컨퍼런스
(INNO-CON) 개최
- 개발자, 채용 가이드북 발간
- 42서울 3기 교육생 선발 (30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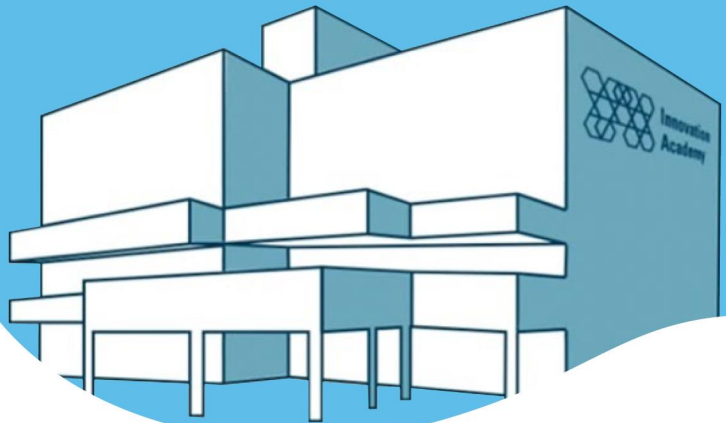
9월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세컨드 플래닛 (서울 서초구) 개소
- 42서울 2기 교육생 선발 (296명)

2월

42서울 1기 교육 시작 (253명)

INNOVATION
ACADEMY



2019

12월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개소식
- 소프트웨어 교육프로젝트 '42 SEOUL' 교육생 선발

11월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재단 설립

8월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창립이사회 개최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재단 창립총회 개최

7월

- 제1대 이민석 학장 취임

3~7월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설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

2월

- 과기정통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INNOVATION
ACADEMY



42서울 소개



“프랑스 Ecole42의 아시아 최초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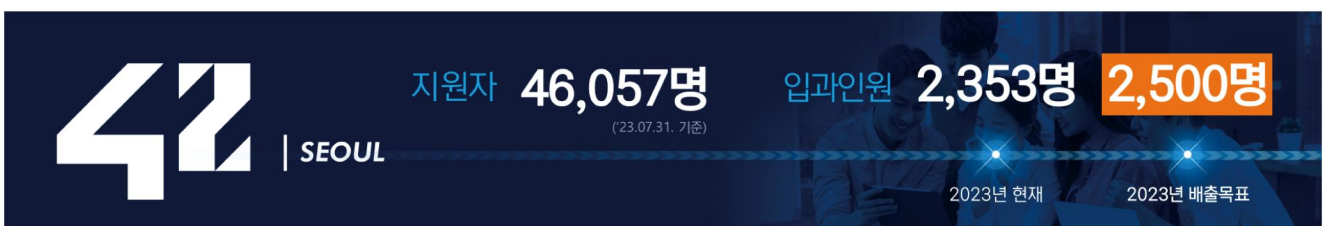
23년 8월 기준 29개국 50개 캠퍼스

42서울은 23년 8월 기준 29개국 50개 캠퍼스에 걸쳐있는 프랑스 Ecole42의 아시아 최초 캠퍼스로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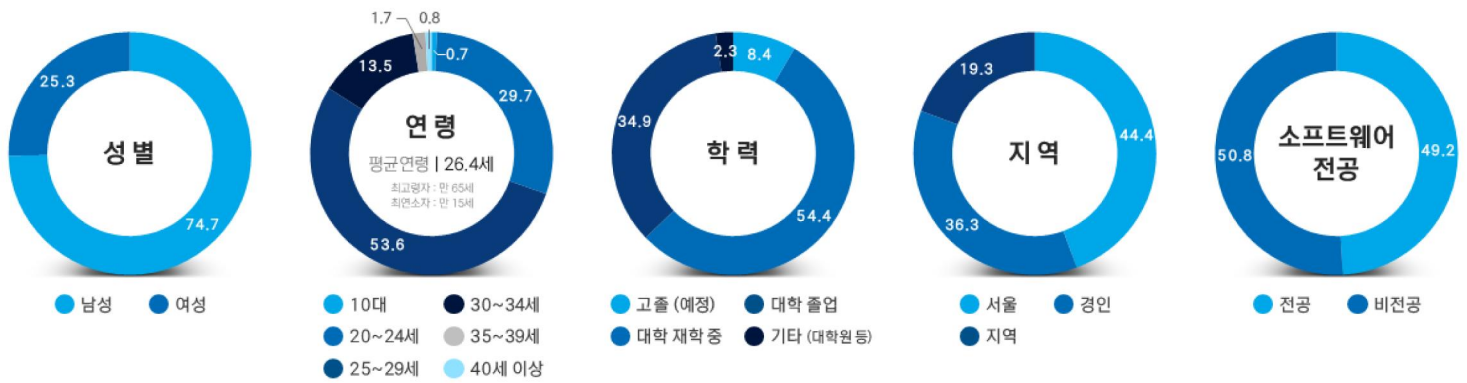
42서울의 교육과정은 프랑스 Ecole42의 교육과정을 도입한 **교수, 교재, 학비가 없는 3無 교육프로그램**으로 비학위 교육과정입니다. 또한, 동료학습을 통해 서로에게 배우는 **P2P(Peer to Peer) 교육**입니다. 현장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이며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게임화)을 적용해 레벨 클리어 방식의 학습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공통과정은 C언어 중심의 유닉스 개발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심화 과정으로는 Java, Swift, C++ 등 프로젝트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합니다.

2년의 교육과정 이후 1년 단위로 최대 3년 교육참여가 가능하며 모든 시설은 **365일, 24시간 개방**됩니다. 또한, 기업과 협업을 통해 커리어를 개발하며,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참여로 기술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교육생 통계



42서울 지원자는 2023년 7월 31일 기준 총 **46,057명**이었으며 그중 **입과 인원**은 **2,353명**이었습니다. 2023년 42서울은 입과 인원을 **2,500명 배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생분들의 성별은 **남성이 74.7%, 여성이 25.3%**로 대략 3/4 정도가 남성이었습니다. 연령대는 20대가 83.3%를 차지했는데 그 중 **20대 후반(25~29세)**이 전체 비율 중 절반을 넘는 **53.6%**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26.4세**이며 최연소자는 만 15세였습니다. 학력은 **대학 재학 중이 54.4%**로 과반수였지만 **대학 졸업도 34.9%**나 됐습니다. 지역은 **서울(44.4%)**과 **경인(36.3%)**을 합쳐 수도권이 80.7%를 차지했고 **소프트웨어 비전공자가 50.8%**로 **소프트웨어 전공자(49.2%)**보다 근소하게 많았습니다.

성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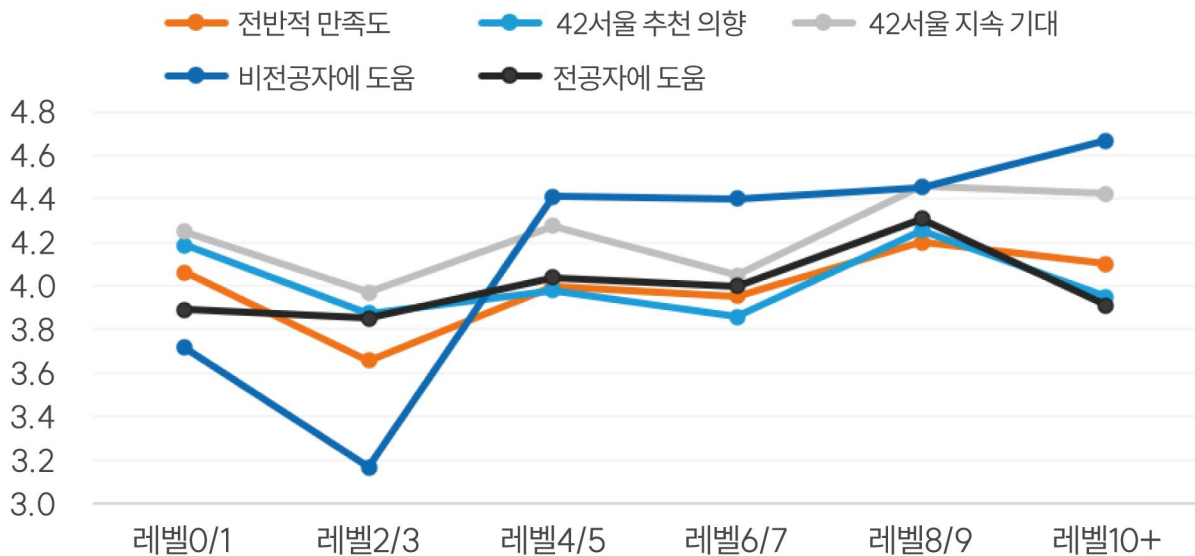
(1기 추적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전반적 만족도 분석 결과

구분	세부 문항	매우그렇다/그렇다 응답 비율	평균 점수(5점 만점)
전반적 만족도	42서울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75.4%	4.00
42서울 추천 의향	나는 주변 친구들에게 42서울 과정을 적극 추천할 것이다.	73.3%	4.01
42서울 지속 기대	나와 비슷한 학습자들을 위해 42서울과 같은 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2.7%	4.26
전공자에 도움	42서울은 전공자가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심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70.0%	3.99
비전공자에 도움	42서울은 비전공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	83.5%	4.25

추적조사 결과, 1기 교육생의 응답에서 **전반적으로 42서울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82.7%가 '**42서울과 같은 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평균 점수 4.26)고 생각하며 83.5%가 '**42서울이 비전공자가 SW개발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평균 점수 4.25)고 생각합니다.

레벨 별 전반적 만족도 분석 결과



레벨 별 전반적 만족도 분석결과를 보면 레벨이 상승할수록 만족도 점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42서울에서 **심화 학습을 함에 따라 교육 효과성이 증가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42서울의 '비전공자에 도움' 수준은 3.17(레벨2/3)에서 4.67(레벨 10+)까지 47.4% 증가하는 등 **42서울은 비전공자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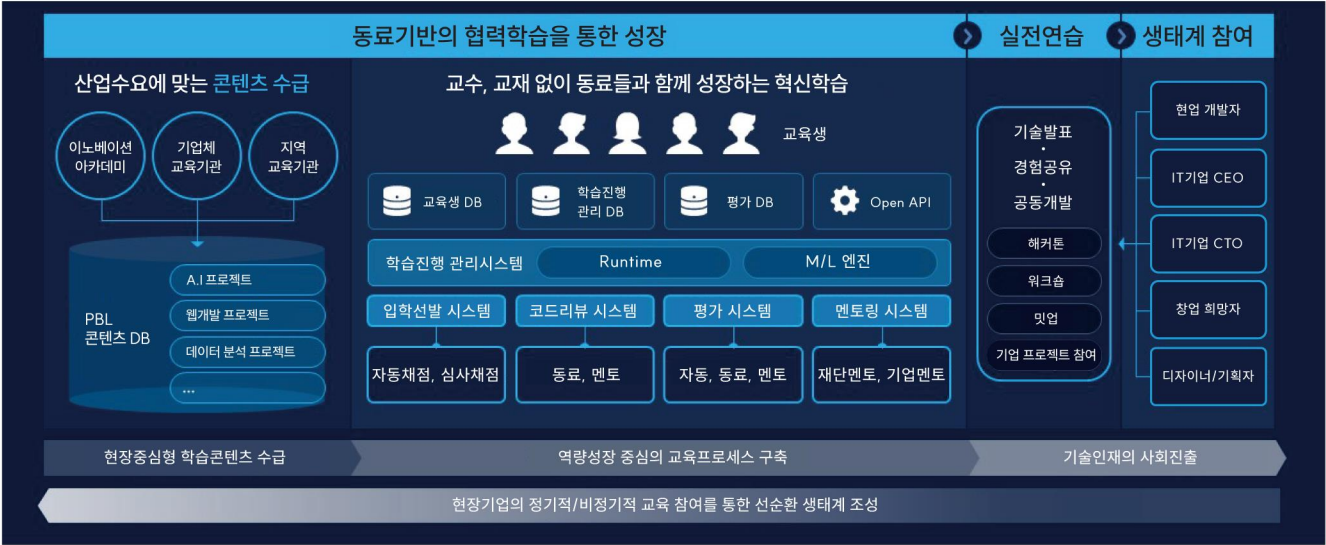
7기로 입과한 98년생 고졸 출신 남성분은 “고졸 학력으로 참여 가능한 SW 기초 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인 것 같아 참여했다”라고 밝혔으며 **3개월 만에 대학 소프트웨어 전공 학사 수준인 공통과정을 통과**했습니다.

91년생 요리 전공(비전공) 출신 1기생 여성분은 **비전공 출신으로 2년 만에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직무에 취업**했습니다. 현재 현대 오토에버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https://youtu.be/gaL0LrE7LfY>)

94년생 교육 전공(비전공) 출신 1기생 여성분은 42서울 입과 전, 교육 관련 기자 활동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 라인 Development Relationship에 근무 중입니다. (관련 콘텐츠: <https://youtu.be/wn5vflFyiq4>)

교육생들은 **유니콘급 스타트업과 빅테크 기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Project-X 소개



Project-X는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 개발하는 오픈소스 기반 교육 시스템입니다. 교육 현장과 산업계, 커뮤니티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고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은 강의 인력 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교육 확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필요한 SW개발 인력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국가적 SW인력 수요를 교육 투자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시스템이 Project-X입니다.

교육방법

교육시스템 설계 철학

운영 철학

동료학습 (Peer to Peer)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 ✓ 데이터 기반 교육
- ✓ 문제, 학습 콘텐츠, 평가를 분리한 **교육 콘텐츠 표준화**
- ✓ 교육에서 투입지원 - 역량 달성 속도의 Trade-off제공
- ✓ **한국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반응하는 **현장형 플랫폼 운영**

- ✓ 개방형 웹기반 on/off-line 플랫폼
- ✓ 참여하기, 기여하기, 발전하는 교육 시스템

Project-X의 교육 방법은 42서울과 비슷하게 **교수, 교재 없이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동료학습(Peer to Peer)**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입니다. 동료학습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물어볼수 있는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에서 서로에게 배웁니다. 또한 프로젝트 중심의 현장 학습 코스로써 동료와 멘토들에게 평가를 받아 상호 소통형 학습을 합니다. 교육생 DB, 학습 진행 관리 DB, 평가 DB, Open API에 기반한 학습 진행 관리시스템을 통해 **역량 성장 중심의 교육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Project-X의 목표는 **산업 수요형 실무 개발 인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실전 연습에서 현업 개발자, IT 기업 CEO나 CTO, 창업 희망자, 디자이너/기획자로부터 해커톤/워크숍/밋업/기업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생이 기술발표·경험 공유·공동개발을 하게 되고 **기술인재의 사회진출**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기업의 **정기적/비정기적 교육참여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

03

심층 인터뷰

조현진 교육생(hyunjcho)	12
조태식 교육생(tjo)	15
현대오토에버 재직자 : 김강욱 수료생(kankim), 박초롱 그룹장	18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임현동 매니저	21



조현진 교육생(hyunjcho)은 2022년 이노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어디있니' 팀의 팀장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로 장관상을 수상했고 프로젝트를 하며 어떤 점을 느꼈는지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42서울 5기 카뎃(Cadet, 본 과정 교육생) 이자 드디어 멤버가 된 hyunjcho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길을 찾고 싶어 42서울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잘 찾아온 것인지 아직 확신이 들지는 않지만, '최소한 중반은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엇을 하며 지내시나요?

A: 얼마 전 공통과정을 통과하여 멤버가 되었고, 이제 진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2서울에 처음 들어왔을 때 비전공자 문과 출신으로 논리 코딩이 아닌 감성 코딩의 선두 주자를 달리던 제가 공통과정을 통과하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약 2년 만에 다시 수영장(라피신)에 던져진 기분이지만 또 한 번 잘 살아남아 보려고 합니다.

42서울 교육생 시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A: 사이드 프로젝트로는 아무래도 제가 장관상을 수상한 '어디있니'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고, 42서울 과제로는 '미니셀'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프로젝트 다 저에게 '처음'을 가지게 한 프로젝트들인데요. 어디있니 프로젝트의 경우 처음으로 진행해 본 웹 개발 프로젝트여서 하나부터 열까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웹 개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시작해 팀원들과 머리를 싸매며 개발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만약 고생만 했다면 이 정도로 좋은 기억이 되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 끝에 좋은 결과가 남아 더 기억으로 남은 프로젝트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운영해 봤다는 그 고양감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니셀은 저에게 42서울에서 첫 번째 관문 같은 과제였습니다. 다른 과제들도 모두 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지만, 미니셀을 끝내고 처음으로 '내가 조금 성장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높아만 보였던 미니셀이라는 산을 하나 넘음으로써 자신감도 조금 생겼고, 앞으로 개발을 지속해 갈 원동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2022 이노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어디있니' 로고

개발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개발자로서 느끼는 나의 장점과 단점도 말씀해 주세요.

A: 아직 제 자신이 '개발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잘 모르기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해보자면 빠른 습득력과 끈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 두 가지 모두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은 것 같기도 합니다. 코딩 테스트 준비를 위해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마다 '나 이렇게까지 바보인가...?'하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일이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끈기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버틸 줄 알고, 느리더라도 지나온 길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A: 공공기관 사업 부서 업무가 저에게 맞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고 싶은 기관도 있었기에 가장 유력한 직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에 다른 소소한 꿈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꿈들은 개발자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라 다른 것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발하고 싶은 분야나 서비스, 혹은 일하고 싶은 산업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어디있니' 프로젝트나 트렌센던스 과제에서 모두 백엔드 역할을 맡아 관련 분야로 개발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경험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당시 제가 재미를 느껴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험에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백엔드개발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과 무관하게 막연한 희망 사항으로는 IoT 분야도 접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하는 그런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서 42서울이란?

A: 저는 퇴사를 마음먹고 '요즘 개발이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국비 교육을 한 번 알아볼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찰나에 마침 어떤 유튜버가 42서울에 대해 얘기하는 영상을 보고 42서울에 지원했습니다. 42서울에 들어와 '든든한 지원금과 소속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외에 어떤 말로 42서울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디있니 팀, 오른쪽부터 팀장 hyunjcho, 팀원 heeskim, sojoo, sungghkim

어디있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서비스를 개발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A: '어디있니'는 친구로 등록한 카펫의 출근 여부 및 현재 위치 정보를 한 페이지에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42서울은 교수, 교재, 학비가 없는 3無 교육으로 동료 학습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2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료'가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과제를 진행하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교수님을 찾아가거나 교재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동료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42서울에서 동료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인트라에서 한 명, 한 명씩 매번 따로 검색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니면 개인 메시저로 "어디세요?", "출근하셨나요?", "오늘 오시나요?"라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아니, 동료를 찾으려면! 동료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저희의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조현진(hyunjcho) 팀장이 2022 이노콘에서 '어디있니'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어요. 수상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팀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처음 오픈 프로젝트에서 1등 발표가 난 후 저희에게 주어진 상이 장관상이라는 소식을 듣고 좋기도 했지만 얼떨떨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팀원이 모두 약 3~4개월 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고 최선을 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런 상을 받아도 되나?'라는 걱정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의 실력에 비해 과분한 상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같이한 팀원 두 명이 오픈 프로젝트 참가 조건 서류 기준을 맞추지 못해 안타깝게도 함께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당시 발표를 준비하며 다른 팀들은 준비하지 않은 홍보 영상을 제작

하는 등, 여러모로 저와 팀원들의 진심이 무척이나 담긴 프로젝트였습니다.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남게 돼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반드시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에,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준 이번 결과를 보며 역시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습니다. 참 뻔한 말이지만 앞으로 더 잘 하라는 뜻에서 주셨다 생각하고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발표 당일 팀장으로서 맛있는 저녁을 사고, 열심히 놀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디있니를 사용해본 주변 카펫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저희는 이 서비스를 만들기 전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42서울 카펫들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라고 확신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처음 베타테스트 진행, 정규 배포 후 생각보다는 저조한 속도로 가입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홍보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역시 어디있니가 필요한 서비스였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동료 평가에서 모르는 카펫을 만나 우연히 어디있니 얘기를 나누게 되면 클러스터에 출근 시 꼭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말을 더러 듣기도 했습니다. 클러스터를 돌아다니다 컴퓨터 화면에 어디있니가 켜져 있으면 내심 뿌듯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디있니는 현재 약 60% 이상의 카펫이 가입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어디있니 팀이 기능 업데이트를 위한 QR코드를 제작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기억에 남았나요?

A: 팀원들이 모두 각자의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들이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정말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은 문제는 처음 42서울에서 제공하는 API의 제한 조건을 알게 된 때였습니다. 프로젝트 설계 당시 전혀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라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안 것이 프로젝트 종료 기한까지 약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서 말 그대로 큰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정말 심시일반으로 아이디어를 내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 이제 회의 좀 그만하고 싶다... 지친다...'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런 팀원들이었기 때문에 어디있니를 계속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완성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어디있니는 동료와 함께 문제의 답을 찾아 해결하는 42서울만의 문화가 담긴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어디있니의 기능을 42서울 밖에서 활용한다면 어떤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요즘 자율좌석제를 운영하는 회사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다른 지역의 사무실로 출근을 하거나, 같은 건물 내에서도 매일매일 다른 좌석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율좌석제 회사에서 어디있니 서비스를 활용 한다면 번거로운 과정 없이 주변 동료들의 근무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무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좌석제인데 회사가 위치 정보를 모아서 보여줄 경우 이를 해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근무'라는 점에서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 어디있니를 기획할 당시 단순 팔로우 형태로 다른 카뎃들의 위치 정보를 전부 제공한다는 점에서 불편해할 카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형태만 다를 뿐 이미 42서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이고, 동료 학습을 모토로 하는 42서울에서 동료의 위치 정보는 '공적'인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있니는 동료의 위치 정보를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회사에서도 근무 장소는 공적인 정보가 될 수 있고, 더 자주 찾을 사람들을 빠르게 확인하는 플랫폼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디자인처럼 프로젝트 내에서 필요한 개발 외적인 기술과 정보들은 어떻게 얻었나요?

A: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면 멘토링과 구글링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당시 소속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담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컨설팅 회사와도 업무를 진행했기에 당시 경험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발표 및 홍보를 위해 제작한 티저 영상은 영상 제작 경험이 있는 팀원이 제작했습니다.

디자이너가 없는 팀이었기 때문에 디자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의 멋진 프론트엔드 팀원들이 예전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참고 자료를 찾아 어디있니에 딱 맞는 디자인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영역에서 저희가 해온 다양한 경험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쓸모없는 우연은 없다는 스티브 잡스의 명언 'Connecting the dots'를 몸소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언젠가 다른 프로젝트 진행 시 유의미한 경험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담당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릴 수 있었던 어디있니 프로젝트

장관상의 영광을 함께 한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3~4개월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가 프로젝트 하나를 끝내고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 모르겠다. 개발 역량이 일천해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팀장이었는데, 다 너희들 덕분이다. 앞으로 더 잘 되자. 나보다 잘 되면 그 회사에 나도 잊지 말고 꼭 불러주고, 잘 할게.



2022 이노콘 발표 후 어디있니 팀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조태식 교육생(tjo)은 대학교에서 국어교육과를 전공하다 정보시스템전공으로 전과한 42서울 교육생입니다. 비전공자에서 전공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 대학과 42서울 사이에서 느낀 점, PCCP 시험 만점 비화를 들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벌써 42서울에서 보낸 시간이 2년이 다 되어가는 6기 카뎃 조태식(tjo)입니다. 무료로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라 마침 할 일도 없어 별생각 없이 응시한 시험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받고 인터뷰까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비전공자에서 전공자로의 전환,
그 사이를 42서울과 함께한
조태식(tjo) 교육생

현재 무엇을 하며 지내시나요?

A: 최근에는 42서울 공통과정 마지막 과제인 트랜센던스를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저는 팀에서 디자인과 프론트엔드를 맡았는데 처음 접해본 분야라 순조롭지는 않지만 좋은 팀원분들과 하나씩 해결하고 있네요. 또 조만간 있을 42서울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팀원들과 준비 중입니다. 주변에서 얘기 듣기론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2서울 외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있을 알고리즘 대회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수상을 위해 대회 참가도 준비하고 있고, 제가 개최하는 대회도 준비 중입니다. 올해 4분기에 크게 하나 열 예정이니 홍보하면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42서울 교육생 시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A: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트랜센던스라는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42에서 해왔던 과제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이거든요. 지금까지의 과제를 통해서는 저수준 언어인 C/C++를 이용해 건물의 맨 아래부터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짜여 있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첫번째 과제이면서도, 다른 과제들을 통해 배워왔던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오던 언어나 도구를 넘어 말 그대로 초월해야만 하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일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하게 될 텐데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한번도 안 써본 것들을 요즘 써 보면서 공부하는데 생각보다 할만하네요. 여담이지만 과제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개발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개발자로서 느끼는 나의 장점과 단점도 말씀해 주세요.

A: 거의 혼자 일해왔기에 크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팀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있어요. 개발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모르는 부분을 빠르게 찾고 그 부분을 빠르게 채울 수 있는 능력. 또,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질문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이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인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길게 말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느끼기엔 같은 걸 공부하더라도 남들보다 약간 더 깊게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데 이게 장점으로,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개발하다 보면 내부 구조를 이해하지 않아도 빠르게 블랙박스처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꽤 있는데 이 부분에서 궁금하게 생기면 쓸데없는 부분들을 찾아보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성향 때문에 넓고 얇은 지식이 꽤 있어서 새로운 걸 이해하는데 드는 시간이 빨라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짧게 보면 단점일 수 있으나, 길게 보면 분명히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A: 저는 학부졸업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꽤 많다고 생각해요. 비전공자 시절, 제가 배우던 전공이 잘 맞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 길로 평생 먹고 살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전공을 바꿔서 다른 진로로 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학부 학점을 살려서 로스쿨 준비를 하거나 CPA(공인회계사)같은 전문직 고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발하고 싶은 분야나 서비스, 혹은 일하고 싶은 산업은 무엇인가요?

A: 제가 취업하게 될 날까지 짧게 잡아도 대략 4년 정도가 남은 상황이라 벌써부터 어느 진로로 갈지 명확하게 분야를 정해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여러 분야를 알게라도 한번씩 경험하면서 뭐가 더 재미있을까 살펴보고 있는 단계예요. 여러 가지 경험하다 보면 뭔가 꽃히는 분야가 있겠죠?

내 인생에서 42서울이란?

A: 갈 길 없던 학생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주고 한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교육을 맛볼 수 있게 해준 곳. 42만의 색다른 교육철학을 통해 어느 교육기관에서도 다뤄보지 못할 내용들까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을 만나며 동료도 구하고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걱정 없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곳입니다.

비전공자 출신인데 개발에 관심이 생긴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수능 이후에 남은 시간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이슈로 온 세상이 난리났던 시절 한 번 배워 볼까 하면서 접한 게 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자가 아닌 제 주변에 이상하게도 개발자가 많았기에 간단하게 기초 정도만 습득한 후 주변에 이제 뭘 하면 좋을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추천받은 게 백준 온라인 저지(Baekjoon Online Judge)였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이때는 사실 '나는 코딩으로 먹고살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기에 다른 분야에 대해 공부해 볼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42서울과 학업을 병행하다 전과하셨는데, 42서울과 대학에서 하는 개발 공부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A: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주로 이론적인 부분에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애초에 대학의 목적이 이론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데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학부과정 동안 공부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42서울에서는 과제에 이론적인 부분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만 제시합니다. 실무와 더 흡사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지식을 공부할 것인지 또 어느 깊이까지 공부할 것인지는 모두 자신의 선택인 겁니다. 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 텍스트만으로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단순히 그 부분을 외워서 좋은 학점만을 목표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시험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답만 쓰면 되니까요. 42서울에서는 과제를 평가받기 위해 이 과제를 모르는 사람이나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직접 내가 한 작업물과 이론적 배경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우는 것만으로는 과제를 통과할 수 없어요. 전반적인 흐름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만 과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학교와 42서울 두 교육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지식이 거의 없었기에 42서울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만 숙지하고 넘어갔던 내용들이 꽤 있는데요. 이렇게 지나갔던 내용들도 42서울에서 전반적으로 다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보충도 수월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흐름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PCCP(코딩전문역량인증시험)

PCCP(코딩전문역량인증시험)에서 1등을 하셨어요. 1,000점 만점 중 몇 점 맞으셨나요? 시험을 준비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었나요?

A: 1,000점 만점 받았습니. 평소에 코딩테스트 목표가 아니라 문제가 더 어려운 대회 수상을 목표로 준비했기에 수월하게 다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따로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은 없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평소 실력 그대로 봤습니다. 이런 시험은 며칠 안에 유의미하게 결과를 바꾸긴 힘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 두세요!



이름	시험일	자격증 번호
조태식		
생년월일	성적유효기간	Code

응시과목 성적

취득점수	응시과목	취득 점수 설명
1000점 /1000	C++	0 1000 나의 점수

취득레벨

취득레벨	취득 레벨 설명
Lv.5	조태식 님은 Lv5 단계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상급 수준의 문제를 최자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최선의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고난도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레벨 및 점수구분

LV.0	LV.1	LV.2	LV.3	LV.4	LV.5
0~399점	400~499점	500~599점	600~749점	750~899점	900~1000점

주식회사 그랩 대표이사 임성수

ohmy

PCCP(코딩전문역량인증시험) 조태식님 성적표

독학하던 시기 백준 온라인 저지(컴퓨터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문제 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문제를 푸는 대회와 시험에 강하신데 이쪽에 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사실 42서울에 들어오기 전에는 공부를 알고리즘 쪽 밖에 안 했습니다. 전공 수업은 들어본 적도 없었고, 다른 분야를 접해볼 기회도 없었기에 꾸준히 하던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처럼 문제 푸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공부 방법에 대한 도움도 얻고 모르는 지식이나 조언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실력이 정말 좋은 편은 아니라서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분들에게 해드렸던 말씀은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백준은 문제를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는데 브론즈부터 루비까지, 또 난이도 뒤에 붙는 숫자가 작을수록 같은 난이도더라도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서 몇 마디 나눠 보면 대부분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 난이도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특정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단순히 복사/붙여넣기로 풀 수 있음에도 과대평가된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는 게 문제인데요. 보통 이런 문제만 푸신 분들은 자신이 풀어본 단계의 문제보다 낮은 난이도의 문제라도 시간 안에 풀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이도만 보고 무시하지 않고, 문제 거르지 말고 많이 푸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일반적인 대기업 코딩 테스트 합격선은 실버 단계(가장 낮은 브론즈 난이도의 상위 난이도)까지만 짧은 시간 안에 깔끔하게 풀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백준 온라인 저지 문제 난이도 별 등급, 출처: solved.ac

42서울 지원 전에는 막히는 문제에 부딪히면 정보를 구하거나 도움을 청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개발에 대한 흥미를 놓지 않으셨나요?

A: 상술했듯이 정말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땐 알고리즘 푸는 걸 취미로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직접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백준 문제는 솔루션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문제별로 질문할 수 있는 게시판 또한 존재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를 겪었는지 볼 수 있었고 저도 그 부분에서 도움을 얻어 가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잡은 목표가 백준에서 플래티넘 단계에 도달하는 거였어요. 꾸준히 조금씩 몇 달간 공부하면서 달성하고 보니 실력이 꽤 괜찮아져서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 볼 실력이 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열렸던 알고리즘 교육에서 상도 받고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고 상금도 타다 보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돼 원동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같이 알고리즘 공부하던 분들이 대회도 열어보자고 해주셔서 실제로 문제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검수하기도 하면서 흥미를 잃지 않고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는 것과 코딩을 잘 하는 것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시험이 코딩 테스트와 같은 시험을 의미한다면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딩을 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주어진 문제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게 알고리즘 분야를 공부하는 거죠. 자신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코드로 옮기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긴 민망하지만 평균보다는 코드 짜는 속도가 꽤 빠른 편입니다. 저는 잠깐 생각해 본 뒤 작동할 거라고 판단되면 의도한 대로 바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머릿속의 생각을 온전히 코드로 옮기는 작업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42서울 지원을 망설이는 비전공 개발자 지망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비전공인데 급하게 취업하기보다는 천천히 기초를 쌓으면서 진로를 개발자로 전환할 생각이 있다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접해보지 않으셨다면 버티기조차 힘들 수 있겠지만 버텨내고 수료하시면 전공자들과도 문제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쌓을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아직 42서울에서 못가본 길이 꽤 많지만 42서울의 과제를 진행하면서 전공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대부분을 미리 들어보거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공부하신다면 타 비전공자들 대비 적지 않은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하차해도 괜찮은 과정이니 신청하셔서 라피신을 한 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해볼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현대오토에버 채용연계 프로그램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A: 첫 면접부터 과제 기간, 마지막 면접까지 모두 다 기억에 남았습니다. 모든 면접관 분들께서 친절하셨고 과제 전형도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과제 전형을 진행하면서 요구사항 설계, 구현하는 과정, 멘토님과 원격회의한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원래 자동차나 모빌리티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나요?

A: 네. 자동차를 좋아했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부 전공이 기계공학이라 접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자 하면 생각나는 앱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SW개발과 차량 SW개발 간 차이점이 있나요?

A: 저 같은 경우 백엔드 업무를 하고 있어 주요 프로세스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차량 관련 데이터인 점이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현대차그룹도 소프티어라는 SW네트워킹 플랫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용해 보거나 테스트 보신 적 있나요? 42서울 교육생 시절 봐왔던 플랫폼이나 테스트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1년 전쯤 코딩 테스트 문제를 보려고 이용했는데 따로 시험에 응시하진 않았습니다. 42서울 교육생 시절엔 백준 온라인 저지(Baekjoon Online Judge)로 문제를 풀었는데 공부하기엔 백준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채용연계 프로그램 예비 지원생들을 위해 현대오토에버만의 특별한 복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A: 현대, 기아, 제네시스 차량 구입 시 첫 차 20% 할인이 있습니다. 월 8회 원격 근무 가능합니다. 다른 복지도 많지만 다른 회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90

42서울 교육생들에게 한 마디해 주신다면?

A: 42서울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좋은 동료분들, 교육생들을 지원해 주신 스태프분들, 멘토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환경에서 쉼쉼 성장하시고 다양한 기회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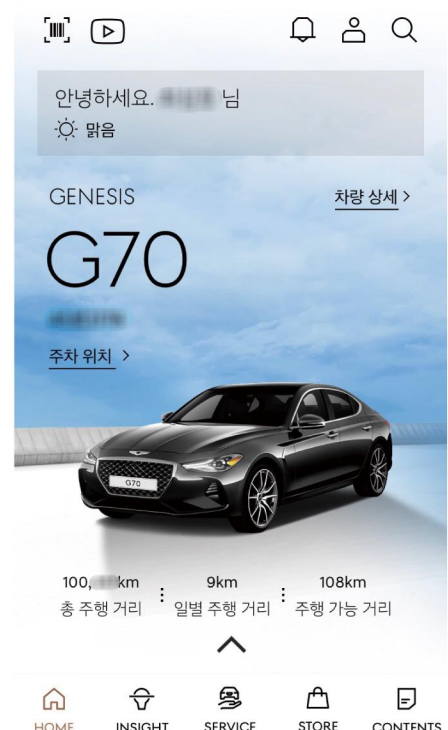
HYUNDAI
AutoEver

몰래 온 손님?! 42서울 출신 개발자와 함께 일하는 분들은 42서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강욱 님이 근무하는 부서의 그룹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초롱 님의 인터뷰를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근무하고 계신 데이터엔지니어링 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데이터엔지니어링팀 데이터백엔드서비스그룹 박초롱입니다. 데이터엔지니어링팀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조직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운영하는 팀입니다.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모델링 등 과정을 거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유용한 정보로 변환해 제공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김강욱 책임님이 속한 그룹은 차량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백엔드 시스템 개발·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차량 데이터 서비스 예시



현대오토에버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A: 각 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모집 공고에 맞는 기본적인 기술 스택에 능숙한지, 문제 해결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갖췄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입 채용의 경우 기술 스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본적인 SW역량이 탄탄하고 문제 해결 능력 등 다른 역량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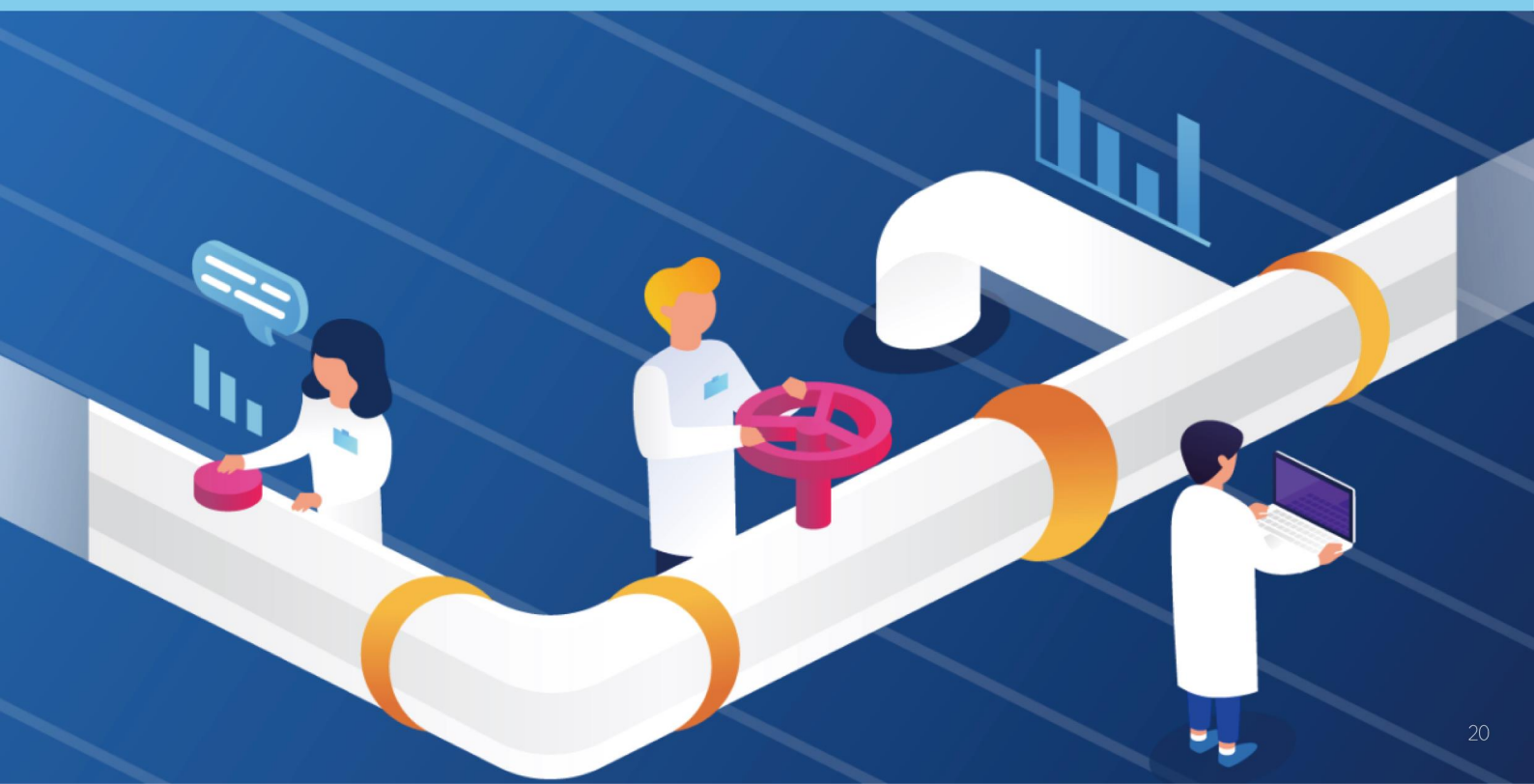
42서울 교육생 출신(김강욱 님)과 일반 입사자와 차이점이 있나요?

A: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능력은 개발자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역량입니다. 하지만 입사 전 면접에서 이를 검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입사 전 김강욱 책임님은 42서울 채용연계 프로그램에서 사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입사 후에도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백엔드 개발·운영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42서울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실습했던 경험이 있어서 다른 입사자들 보다 학습에 유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현대오토에버 개발자가 될 수도 있는 42서울 교육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당분간 계속해서 현대오토에버 대규모 채용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강욱 책임님과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42서울 연계 채용이나 일반 전형으로 충분히 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모집 공고가 열렸는지 꾸준히 확인하시고 지금 42서울에서 하고 계신대로 노력하시면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데이터가 필요한 사람이나 조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엔지니어링팀



교육생과 함께함으로써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꽃 보칼!**(Bocal, 42서울팀에 속한 직원) 보칼의 눈으로 바라보는 42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임현동 42서울팀 매니저**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42서울 카넷(교육생) 출신 보칼임현동(탱)입니다. 주로 42서울 운영에 있어서 IT/프로그래밍능력이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2서울 카넷 시절 임현동(탱) 보칼

현재 무엇을 하며 지내시나요?

A: 업무 면에서는 10기 라피신을 진행 중이며, 그 밖에는 42서울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보고자 공부하는 중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에서 스스로를 조금 분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분리한 시간에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42서울 교육생 시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A: 미니셀,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한창 과제 진행 중 재단에 입사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체력으로 버티면서 진행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며 감내해 준 팀원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서로 자신 있는 분야가 달랐고, 서로의 지식을 쥐어짜내며 코딩을 번갈아가면서 해 프로젝트를 마무리 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니다. 비록 결과물 자체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부끄러울 정도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 한 경험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나 예전 직장에서는 혼자서 다 하려는 성향이 강했거든요. 우정 파괴 과제라는 미니셀을 무사히 마무리한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족을 붙이자면 저는 아직도 교육생으로서도 계속 학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개발자로서 느끼는 나의 장점과 단점도 말씀해 주세요.

A: 42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하는 개발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추진력을 부여하는 호기심
- ② 검증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지구력
- ③ 나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의견조차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함
- ④ 또는 그것에 반박할 수 있는 소신과 자신감
- ⑤ 덤으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적인 부분은 알아서 채워진다고 믿습니다. 스스로를 개발자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호기심과 지구력 자체는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과해 언제나 걱정은 많은데 타협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호기심이 생기고 다시 타협 없이 조사하는 악순환 때문에 정작 추진력은 약한 편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많은 동료들의 의견을 듣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네요. 타협이 쉽지 않은 저에게 너무 과한 부분은 타협할 수 있는 훌륭한 명분을 제공해 주는 좋은 동료가 많습니다.

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A: 음식점이나 주류 취급 등 요식업계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식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 중 선택했을 것 같아요. 영상편집 분야를 공부했을 수 있고, 아니면 자전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전거 관련 산업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컴퓨터와 게임을 좋아해서 PC방에서 일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 PC방에서 일한 경력도 짧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개발하고 싶은 분야나 서비스, 혹은 일하고 싶은 산업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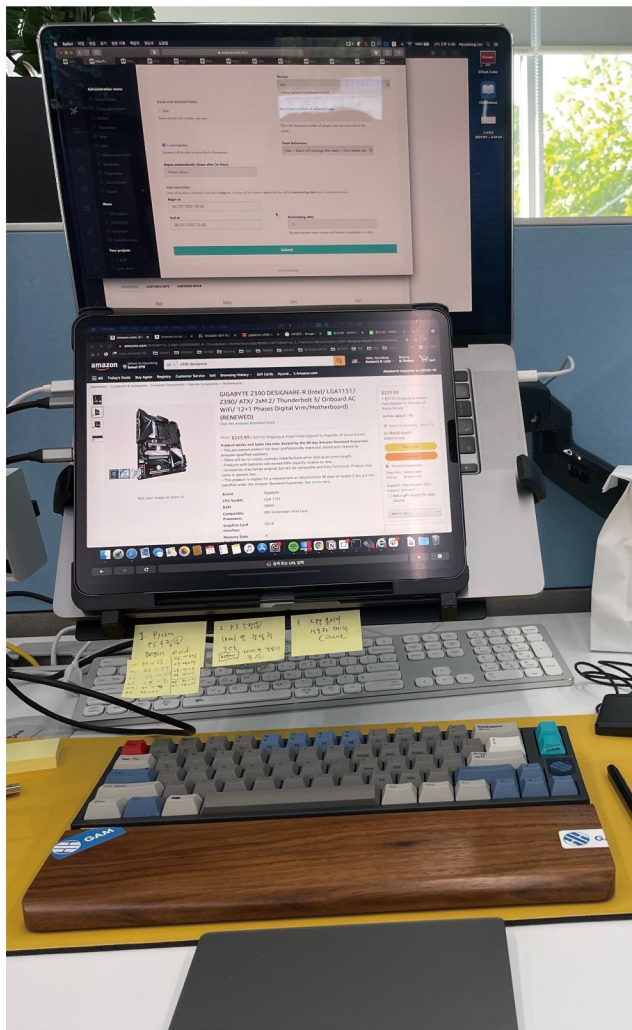
A: 42 시스템과 연동되는 퀘스트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교육생들에게 소소한 목표를 부여하고 성취하며 42에서의 생활을 더욱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생활밀착형 게이미피케이션 플랫폼이랄까요.

내 인생에서 42서울이란?

A: 언제나 즐거운 소재가 만들어지고 같은 환경과 주제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는 놀이터. 프로그래밍이라는 하나의 주제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너무 즐겁습니다. 사람이 천명쯤 모이면 제가 가진 상식을 부수는 놀라운 생각들이 끝없이 나타나는데 이런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지요.

보칼은 무슨 일을 하나요?

A: 42의 교육학 원칙을 준수하며, 42가 제시하는 목표를 교육생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회 구성주의적 접근 방식을 채택해 교육생들이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개별적인 속도와 경로를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일을 합니다.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 이를 위한 수단입니다.



임현동(탱) 보칼의 사무실

어떤 계기로 보칼이 되셨나요?

A: 저 같이 집중력 부족하고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즐겁게 컴퓨터 공학을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고 42는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침 구직 활동을 하던 시기에 보칼을 모집하는 공고문을 발견해 지원했습니다. 42서울에서의 생활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많은 교육생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육생 일화가 있나요?

A: 정말 많은 동료들이 생각나서 고르기가 어렵지만, 한 명을 고르자면 파리로 전학 가서 공부 중인 동기가 생각납니다. 라피신에서부터 파리에 가서 공부하고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내심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버텨가며 공부하더니 목표를 이루더군요. 다투기도 많이 다투었고 서로 고민도 들어주면서 힘든 시기를 함께했기에 그 친구도 저도 꿈을 이루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2서울을 정말 좋아하고, 파리로 떠나고 나서도 항상 현지의 정보를 공유해주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교육생이 성장하는 과정을 곁에서 바라보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처음 들어오는 교육생과 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취업하는 교육생의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A: 처음 들어오는 교육생들을 보면 걱정부터 듭니다. 42의 철학을 과연 이해해 줄지, 이해를 못 하거나 곡해를 하여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걱정입니다. 그래도 많은 교육생들이 42의 철학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을 보면 괜한 걱정 같기도 합니다. 제가 더 잘하면 모두가 42의 철학을 이해하고 각자의 성장을 다른 형태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걱정을 털어내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교육을 시작할 당시의 기쁨과 설렘이 느껴집니다. 저에게는 너무 고맙고 소중한 기회였거든요.

떠나는 교육생들을 보면 솔직한 마음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어릴 적 놀이터에서 함께 놀던 친구가 이사를 간다는 말을 들은 느낌이라까요? 물론 다른 친구들도 있고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기겠지만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큼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신 떠나는 교육생을 보면서 걱정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제대로 학습한 사람은 당연히 밖에서도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솔직히 이곳은 즐겁지만 오랜 시간을 버티며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42서울 교육생들이 서초 클러스터에서 치열하게 공부 중이다

42 | SEOUL

42서울 생활에 잘 적응하는 교육생도 있겠지만 아닌 교육생도 많이 봐오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A: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진단을 해보는 편입니다. 이곳에서 권장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 오해가 없는지,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등을 면담을 통해 알아내는 편입니다. 라피신을 무사히 통과한 교육생이 본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는 몰입을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능력 부족으로 적응을 못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면담을 해보고 몰입이 불가능하고 해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과정을 중단하는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과제 자체의 어려움이 있다면 저 또한 보칼이 아닌 한 명의 카뎃으로서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고요. 교육생 출신만 가능한 저만의 특수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SW 개발 업계 트렌드 파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A: 제가 업계 트렌드 파악은 빠른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42서울 안에서 교육생들과 꾸준히 대화를 나누면 너무 늦지 않게는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트렌드는 진로를 탐색 중인 교육생들이 가장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 노력은 많은 교육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재단 구성원으로서 목표 또는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A: 42서울팀의 매니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42서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전통을 이어 나간다면 더 좋은 프로그래머가 많아질 것이고 나아가 대학교라는 종래 시스템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42서울이 우리나라 개발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돕는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꽃피울 것이라 믿습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와 42서울 교육생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임현동(탱) 보칼)

04 재단 이모저모

전자신문 기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 SW 인력 양성 변화 필요하다" ----	25
한국공학교육학회 학술지 '인재니움' -----	26
HRD협회 월간 매거진 7월호 'EDUTECH' -----	30
상반기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파트너들 -----	32
42서울 앰배서더 발대식 -----	33

Software for people, for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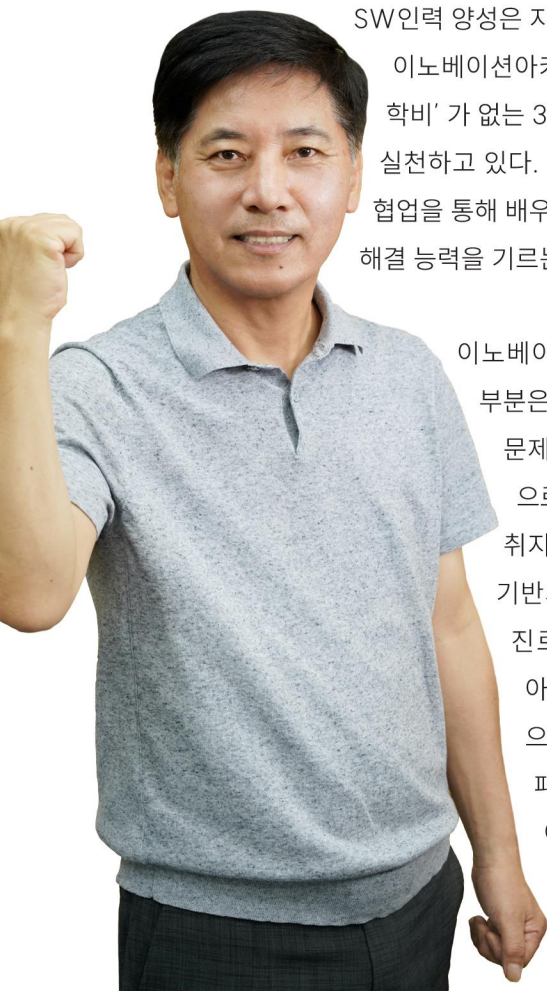
챗GPT, 코파일럿 등 생성형 AI 도구에 프롬프트 몇 문장으로 웬만한 프로그램까지 생성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생성형 AI가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SW 인력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SW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이해, 분석하고 어떤 시스템에 어떤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여 어떻게 구현할지 구조를 설계하고 그에 맞춰 코딩을 통하여 진행되는 복잡한 단계로 이루어지며 생성형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중 일부로 SW 개발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 오히려 자율 운전 자동차, 스마트 디바이스 등 SW가 필요한 분야가 확대되고 복잡해 짐으로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주요 IT/SW 분야 인력 부족이 해가 갈수록 더욱 심화하여 2022년 기준 약 1만 5천 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더 많은 고급 SW 인재가 필요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SW 교육은 교수자 중심의 이론강의를 기반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20세기 초 산업화에 따라 단기간에 많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안된 교수자 중심의 "구조주의"(1920년 소쉬르) 교육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SW 분야는 매년 새로운 언어와 도구가 등장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을 일률적으로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교수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지식정보 서비스 중심의 산업 확산에 따라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수자 없이 자기주도 학습 중심의 "사회적 구성주의"(1960년 비고츠키) 교육 방식이 주목 받고 있으며 프랑스 '에콜(Ecole) 42'는 바로 이러한 방식의 교육을 도전적으로 적용하여 성공한 혁신적인 교육 방식으로 평가받아 전세계 27개국 49개 캠퍼스로 확산되어 운영 중이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42서울"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에콜(Ecole) 42'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0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다양한 기술 습득과 훈련에는 맞지 않는 "구조주의" 교육방식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적 구성주의"(1960년 비고츠키)로 지금의 42서울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 철학이자 학습 모델이다. "구성주의"는 기술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기술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소프트 스킬"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혼자가 아닌 함께 그리고 지식 습득이 아닌 지식을 기술 구현하는 경험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재화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SW인력 양성은 지식습득 활동에서 나아가 기술습득훈련까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본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42서울"은 SW인력 양성의 새로운 대안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교수, 교재, 학비'가 없는 3無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자기주도형 동료학습기반,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동료학습을 실천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은 교육생 스스로 습득하고 동료 교육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배우는 동료학습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고 새로운 지식을 계속 습득할 수 있는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42서울" 교육생 출신들의 장점으로 현업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는 부분은 개발자에게 있어 코딩만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다. 동료학습을 통해 협업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나가는 학습 과정을 경험한 부분이 현업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42서울"은 비전공자도 SW개발자로 성장하도록 돕겠다" 교육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육생들이 입교하여 스스로 또는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 기반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며 SW개발 지식을 습득하여 IT/SW기업의 개발자로서 당당히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내년부터 시작될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2단계 사업을 통해 수많은 예비 SW개발자들이 "42서울"을 통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SW인력 양성의 변화가 절실한 작금에서 "42서울"은 SW인력 양성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앞으로의 SW교육 대전환을 이끌어 낼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교수, 교재, 학비가 없는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이노베이션아카데미

2023년 3월

전 영 표

ypjun@innoaca.kr

관심분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박 성 찬

scpark@innoaca.kr

관심분야 정책연구, IT교육

박 용 찬

yongchan@innoaca.kr

관심분야 정책홍보, IT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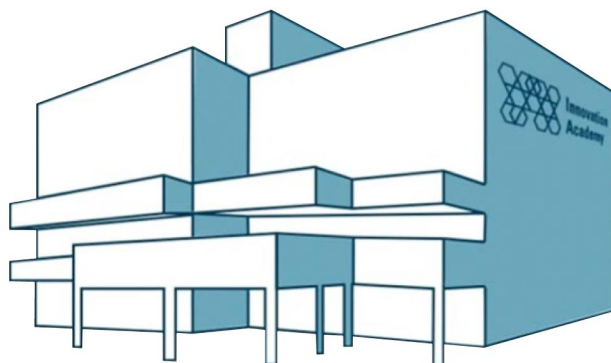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설립

재단법인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설립된 기관이다. 2018년 당시, 정부가 이노베이션아카데미를 설립하고자 하는 배경은 명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서는 세계 수준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1만 명 혁신 인재 양성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적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 교육 프로그램 도입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9년 2월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와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설립을 추진한 끝에 같은 해 8월 재단법인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문을 열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에콜42(Ecole42)의 문제 해결식 학습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하여 42서울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산업 수요에 맞춰 확장할 수 있는 오픈 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학습 플랫폼(가칭 Project-X)을 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또는 기관과 소프트웨어 인재를 연결해 주는 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하여 개발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3무(無) 학습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과정 42서울

42서울은 에콜42의 서울 캠퍼스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오픈한 42 캠퍼스이다. 에콜 42는 프랑스의 대형 통신사 프리(Free)의 CEO인 자비에 니엘(Xavier Niel)이 자기주도 학습 및 동료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비영리 개발자 양성 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2013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했다. 에콜42의 숫자 '42'는 더글러스 애덤스의 SF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깊은 생각'이라는 컴퓨터를 750만 년 동안 돌려서 찾아낸 답이 바로 숫자 '42'였다. 즉, 삶과 우주와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숫자로 일컬어지는 42에서 착안한 것이다.

42서울은 현재 서울뿐 아니라 일본, 태국, 독일, 러시아 등 26개국에 걸쳐 47개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다. 42서울은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핵심 가치 아래 교수, 교재, 학비가 없는 3무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가르치는 사람과 교재가 없이 어떻게 학습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42 시스템에서 단계별로 제공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문제들을 스스로 또는 동료와 함께 해결해 가다 보면 컴퓨터의 구조적인 지식과 소프트웨어 개발 지식을 함께 습득할 수 있다.

주입식 교육 혹은 도제식 교육에 익숙한 대한민국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이나 동료 학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기에, 42 서울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은 스태프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동료 학습이라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동료를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교육생 선발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이자 한 달간의 집중 교육 과정인 (La piscine)을 거치게 되면 비로소 42서울 교육생으로서 필요한 마음가짐과 학습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42서울 선발 과정과 라피신 (La Piscine)

42서울의 교육생 선발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억력 테스트와 논리력 테스트로 이뤄져 있는 온라인 테스트이다.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으며 기억력 테스트는 4분, 논리력 테스트는 2시간이 소요된다. 코딩 실력이 있어야 하는 시험은 아니며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장소에 상관 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하면 두 번째 단계인 체크인 미팅을 신청하게 되는데 체크인 미팅은 매월 1회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기에 만약 정원이 마감된다면 다음 달 열리는 체크인 미팅에 신청해야 한다.

체크인 미팅에서는 본인확인 및 42서울 입학이 제한되는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마지막 선발 과정인 라피신에 대한 설명과 학습 공간 투어를 진행한다. 체크인 미팅까지 완료한 지원자는 라피신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고, 정해진 라피신 참가 신청 기간에 신청 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 선발 과정인 라피신(La piscine)은 프랑스어로 수영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수영장에 빠진 후 헤엄치는 법을 터득해 생존한 지원자만이 사관생도를 뜻하는 카뎃(Cadet)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피신 지원자들은 약 한달(4주) 동안 동료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장소와 PC, 그리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만 부여받은 채 별도의 가이드 없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개인 과제와 팀 프로젝트(Rush)를 반복하며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라피신에 참여한 지원자는 한 주 평균 70시간 이상 학습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매주 금요일은 개별 시험을 치르고 화요일에는 팀 프로젝트 평가를 받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23개월의 여정을 시작할 본 과정 교육생이 선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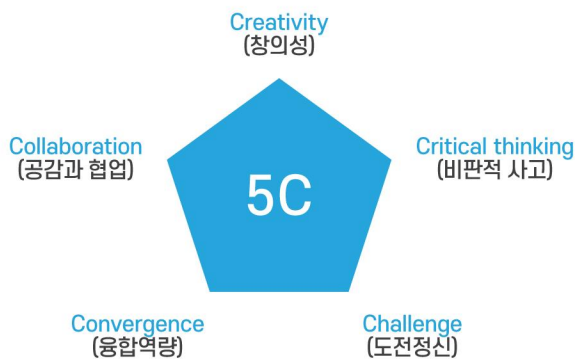
42서울 본 과정, 23개월의 여정

치열한 선발 과정을 뚫고 본 과정을 시작하게 되면 교육생들은 각자 최소 20개 이상의 개인,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42서울의 커리큘럼은 크게 공통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공통 과정은 단어 뜻 그대로 모든 교육생이 공통으로 수행하게 되는 과정이고 심화 과정은 공통 과정을 통과한 교육생이 전문 분야를 선택하여 계속적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공통 과정의 커리큘럼은 C 언어 프로그래밍과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개념을 기반으로 시작하여 운영체제, 그래픽 및 웹 프로그래밍 등을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생에게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별도로 제공해 주지 않으며, 모든 것을 스스로 또는 동료와 함께 헤쳐 나가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점차 확보하게 된다. 또한, 42서울은 교육생들이 재미와 동기를 유지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에 다양한 게임 요소를 담고 있는데, 교육생이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얻어 학습 레벨을 빠르게 올릴 수 있거나 특정 임무를 완수하면 업적을 획득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2서울의 학습 기간이 학교를 제외한 타 소프트웨어 교육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긴 만큼 학습 진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본 과정 교육생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블랙홀 날짜'라는 것을 부여받게 되는데, 부여받은 블랙홀 날짜까지 수행 중인 과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블랙홀에 빠지게 되고 42서울 교육생 자격이 박탈된다. 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면 퇴학을 당하게 되는 셈이다. 꼭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학업 중간에 취업이 되거나 개인 사정에 의해 학업을 이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 반면, 블랙홀 날짜 이전에 과제를 통과하면 블랙홀 날짜가 일정 기간 연장된다. 또한 커리큘럼 중 공통 과정을 모두 통과하고 42 멤버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블랙홀 날짜는 사라지고, 블랙홀 제도로부터 자유롭게 학습을 이어 갈 수 있다.

본 과정 기간에는 교육생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이드 프로젝트 및 동아리 활동도 진행한다. 대표적인 사이드 프로젝트로는 학습하는 도중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 관리 시스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 공간, 사물함 대여 시스템 등을 직접 구축한 사례들이 있다. 또한, 관심사가 비슷한 동료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분야의 기술적 탐구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교육생들과 해당 관심사를 함께 즐기기 위한 장치도 직접 마련하곤 한다. 탁구라는 관심사로 모인 '42GG' 팀은 탁구 경기 일정을 예약하고 결과에 따라 순위를 매겨주는 앱을 개발해 큰 호응을 얻어, 대형 게임 회사인 크래프톤(Krafton)에서 개발 과정을 발표하고 코드 리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 속에서
42서울 교육생은 5C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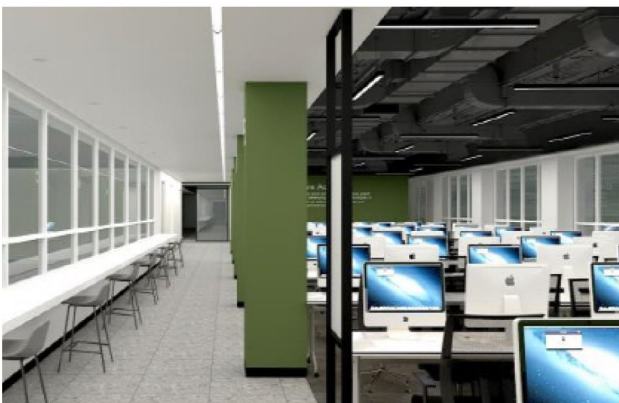
Project-X 교육과정 개발 필요성 및 전략

첫째, 비대면 환경에서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존 프로젝트형 학습 방식(PBL)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한다. 이 경우 다소 변화가 느린 교육 시장에서 빠른 변화 및 전파가 가능하고 시공간적 제약도 해소할 수 있다.

둘째, 오픈소스 기반으로 진행함으로써 범용성과 경제성 문제를 개선한다. 오픈소스 플랫폼은 다양한 개발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폐쇄적 개발방식에 비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이 때문에 Project-X는 유연한 개발, 높은 호환성과 유연성, 상대적으로 유지 보수 비용 저렴,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서 적용 및 개선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Project-X의 교육과정

Project-X의 교육모델은 크게 학습모델과 교육과제, 그리고 평가방식에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학습모델에서는 능동적 참여 중심 학습 과정을 거치며 혼자가 아닌 함께 (Peer Learning) 그리고 지식의 습득이 아닌 지식을 기술로 구현하는 경험(Learning by Doing)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재화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 학습모델을 표방한다.



개발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산업군이나 인프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음을 인지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 간의 유기적인 교류와 활동을 촉진하는데도 관심을 쏟고 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채용 및 창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간 경력 전환 교육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최근 산업계 전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필요로 하면서 DevRel(Developer Relations)이라는 직군이 본격적으로 떠올랐는데, 기업의 DevRel 활동에 관심을 두고 예비 개발자와 응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도 한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비전

2023년은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게 의미 있는 해이다. 1단계 사업 5년이 종료되는 동시에 2단계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노베이션아카데미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학습 중인 또는 학습했던 교육생이 2,300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수많은 예비 개발자들이 이곳을 거쳐 실력 있는 개발자로 성장할 것이다. 'Software for People, Software for World(사람과 세상을 위한 소프트웨어)'라는 슬로건처럼,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개인을 넘어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에 기여하는 미래 핵심 인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Innovation Acade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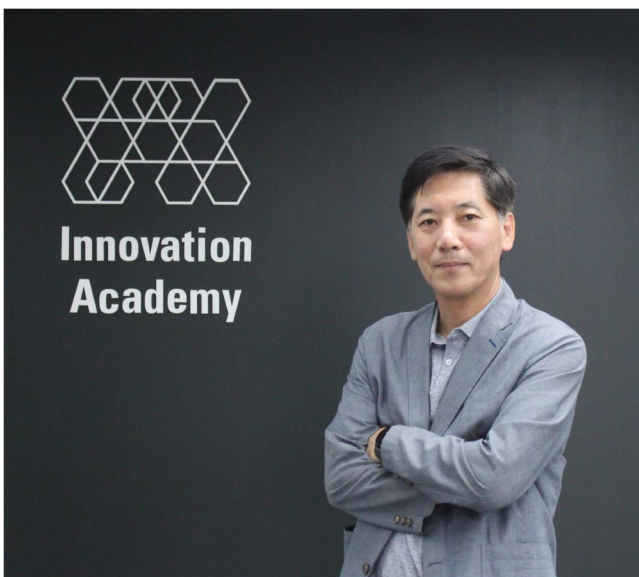
3無 교육, 플랫폼, 생태계를 키워드로

SW 인재육성 Hub를 향해 나아가다

2023년 7월호



이노베이션아카데미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소프트웨어(SW) 인재 육성 허브(Hub). 교수, 교재, 학비 없는 3無 교육, 산업구조 맞춤형 SW 인재 육성 플랫폼, SW 생태계 활성화에 집중하는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미션이다. 어느새 설립 이후 5년, 교육을 시작한 뒤로 3년째를 맞은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올해 2월 취임한 전영표 2대 학장과 함께 안정 속 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3無 교육, 플랫폼, 생태계는 각각 학습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와 맞닿아 있는 만큼 HRD 측면에서 시사하는 부분이 상당했다.

SW 업계 인재난과 주입식 교육은 현재 진행형이다. 너무나 빠른 디지털 대전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벌어진 현상이다. 물론 ICT 중심 세상에선 SW 개발자 육성이 절실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려면 자기주도학습이 필수라는 점엔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문제는 'where?' 그리고 'how?'다. 이때 주목해야 하는 곳이 '이노베이션아카데미'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설립됐고, 경쟁력 있는 SW 인재 육성이 미션이다.

이곳에서 전영표 학장은 안정 속 도약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학사, 석사, 박사 모두 SW를 전공했고, 벤처 1세대로서 핸드 소프트웨어, 한국MS,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에서 일하며 민간과 공공 모두에서 ICT 경험을 축적했다. 최근까진 대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그런 만큼 그는 SW 개발자/교육자/리더로서 다각도로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강점과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살피고 있다.

먼저 그는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주요 사업(42 Seoul, Project-X, 소프트웨어 생태계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우리는 교수, 교재, 학비가 없는 3無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바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Ecole 42의 한국 캠퍼스인 42 Seoul입니다. 교육생들은 단계별로 주어지는 프로젝트를 자기주도학습과 동료학습을 통해 해결하며 코딩한 결과물도 동료들과 함께 리뷰하며 성장합니다. 다음으로 Project-X는 빅데이터 기반 수준 별 적응형 학습관리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물어볼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코드 리뷰 중심 비대면 학습 방법, 프로젝트 중심 현장 학습코스, AI와 머신 러닝 등 신기술 콘텐츠 등을 아우르는 시스템입니다.

42 Seoul은 프랑스의 산업구조와 교육철학이 담긴 Ecole 42에 맞춰 운영되기에 우리 상황과 맞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따라서 42 Seoul을 보완, 장기적으로는 대체하고자 개발 중인 사업이 Project-X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생태계 지원 사업에선 우리나라 SW 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컨퍼런스, 경력 전환 교육, 기업들과 SW 개발자의 매칭/관계 맺기, 다채로운 융합형 콘텐츠 제작 및 배포, SW나 오픈소스 커뮤니티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Project-X는 개발자 생태계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지원 사업은 현재와 미래 모두 겹쳐있는 과제다. 그렇다면 42 Seoul은? 현재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42 Seoul은 현재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SW 개발자 교육이다. 가장 적게는 16세, 가장 많게는 64세, 다수는 20세-30세인 교육생들이 42 Seoul을 노크하며, 온라인 테스트,체크인 미팅, 집중교육 과정(1개월)을 통과해야 본 과정(약 23개월)에 들어갈 수 있다.

작년부터는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SW 개발자를 구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거나 다른 나라의 캠퍼스로 가서 심화 과정을 듣기도 한다. 여기에서 전영표 학장은 “본 과정까지 마치면 인증서를 발행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증서에 QR코드도 넣어서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마친 SW 인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역량 프로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취업을 불안해하는 교육생과 맞춤형 SW 인재가 필요한 기업들의 고민을 모두 해소해 주기 위해서다. 이어서 전영표 학장은 3無 교육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처음에는 정말로 교수자가 없고, 주어진 계정으로 접속하면 리눅스나 C언어에 관한 기초 영상을 볼 수 있다. 이후 문제/프로젝트가 던져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찾아서 습득하며, 다양한 학생들과 토론하고, 결과물도 반드시 함께 질의응답 중심으로 리뷰하면서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전체를 한번에 배우는 만큼 깊이는 부족할 수 있지만 문제/프로젝트의 수준을 높여가며 보완한다. 그렇기에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융합능력, 도전 정신, 공감하고 협업하는 태도를 갖춘 인재육성이 가능하다. 또한, 전영표 학장은 “본 과정 앞의 1개월 집중교육 과정에선 매주 시험을 보는데 처음에는 문제/프로젝트에 손도 대지 못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면서 성취감을 얻고, SW개발을 향한 흥미와 열의도 갖게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전영표 학장은 미래 교육에 대한 관점도 공유했다. 그는 수기 작업, 컴퓨터, 엑셀/워드/PPT 등을 거쳐 챗 GPT에 이르기까지 시스템과 프로그램 사용자가 생산성을 높여온 여정을 언급하며 “나이 나 성향이나 각종 여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새로운 것을 접하려고 하고, 누구에게든 배우려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배운 것을 막힌 곳이 없이 활용하는 역량과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ICT가 발전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만큼 앞으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역량의 유무에서 나오는 차이는 과거의 컴퓨터 활용 능력 유무의 차이보다 훨씬 클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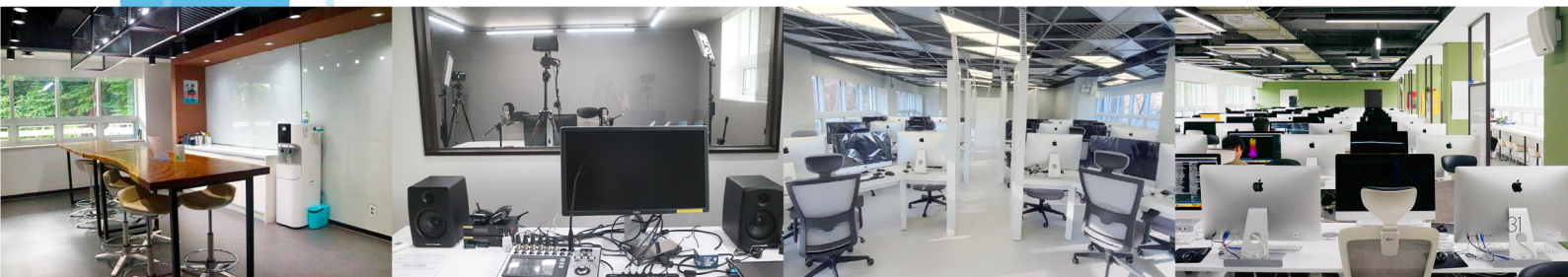


오픈스튜디오 KERNEL



오픈스튜디오 ASSEMBLY

앞으로 전영표 학장은 42 Seoul 정착과 표준화, Project-X의 완전한 개발, 소프트웨어 생태계 지원사업 확산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플랫폼과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기업과 기관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세계 곳곳에 있는 Ecole 42캠퍼스에서도 Project-X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라며 SW 한류를 향한 희망도 내비쳤다. 이상과 같이 전영표 학장은 ICT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사명감을 바탕으로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안정 속 도약을 리드하고 있다. 3無 교육, 플랫폼, 생태계는 각각 학습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 변화와 맞닿아 있다. 그러니 이노베이션아카데미가 혁신적 행보를 거듭하며 SW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HRD·교육에도 많은 인사이트를 선사해 주길 응원한다.



올해 상반기를 함께 한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파트너들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학교·기업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Project-X를 발전시키고 42서울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표를 함께하고 있는 2023년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새로운 파트너들을 소개합니다.

03.13

그림
임성수
대표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세계적인 개발자 양성 과정에 프로그래머스의 코딩역량인증시험을 활용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양사의 협력으로 개발자의 성장과 커리어 발전을 장려해 개발자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

04.13

한림대
이선우
정보과학대학장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우수한 SW 개발자로 양성해 온 이노베이션아카데미와 업무 협력 관계가 돼 기쁘다”, “교내에 Project-X 시스템이 도입돼 학생들의 현업 중심 역량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



한림대 이선우 정보과학대학장

04.21

KOSA
김동철
부회장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보유한 이노베이션아카데미와 협력해 우수 SW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



KOSA(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김동철 부회장

06.01

우송대 엔디컷
국제대학
이유탉 총괄학장

“지금까지는 교육(Education)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학생들이 주체가 돼 학습하는 러닝(Learning)을 지원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대학도 기존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기관과 산업체,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협력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 및 러닝 생태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송대 엔디컷국제대학 이유탉 총괄학장

06.29

연세대
윤상균
단장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꾸준히 양성하고 있는 이노베이션아카데미와 협력이 매우 기쁘다”, “SW중심대학을 위주로 Project-X 테스트와 개발에 적극 참여할 계획”



연세대 미래캠퍼스 윤상균 단장

07.28

KGIT
조영철
회장

“산학협력을 통한 개발자 네트워킹, 프로젝트 협업, 취업 연계 등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



KGIT(한국소프트웨어수출기업협의회) 조영철 회장

42서울을 가장 잘 아는 이들! 42서울 앰배서더 2기 발대식



2023년 6월 30일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새롭관에서 42서울 앰배서더 2기의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선발된 앰배서더 10명은 전(前)·현(現) 42서울 교육생으로 한 달에 한번 7월부터 11월 까지 가지각색 콘텐츠를 통해 42서울을 알릴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투어에서 42서울에 관심 있는 예비 교육생들에게 생생한 생활을 전달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42서울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널리 알릴 앰배서더들의 각오를 한 마디씩 들어볼까요?



daijeong

본과정을 시작한 지 반년이 되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코딩 지식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사회생활 같은 부분에서도 얻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42서울에서의 배움, 느낀 점을 재밌게 영상과 글에 녹여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uiclee

1년간 본과정 생활을 하면서 42서울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특별한 교육이 만난 42서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gkwon

42서울에서 얻은 가장 큰 재산은 다름 아닌 동료와 환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타지에서 올라온 저의 관점으로 소중한 환경, 동료들의 이야기와 가치를 담고 싶습니다.

inshin

42서울에서의 2년간의 생활을 바탕으로 비전공자를 포함한 누구나 프로그래밍을 접할 수 있는 42서울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앰배서더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열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jekim

42서울이라는 공동체가 생기고 모이며 발전하고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가진 가치들이 무수히 많고 풍부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와 사람과 공동체를 드러내며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jkim3

42서울에 들어와서 좋은 동료들과 만나게 됐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42서울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42서울 화이팅!!



juha

제가 이너서클을 돌면서 느꼈던 좋았던 경험과 생각을 카드뉴스로 잘 녹여서 42서울 내의 더 좋은 문화를 다른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볍게 42서울 여행 함께 떠나요!



surlee

납득이 될 때까지 테스트하고 깊이 공부하고! 개발 공부를 42서울에서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2년 가까이 42서울에서 공부하며 만난 다양하고 멋진 동료분들의 이야기, 만족할 만한 깊이의 학습을 해 올 수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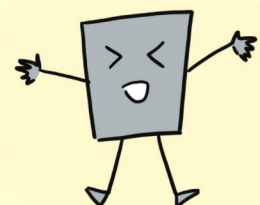
wonlim

42서울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모두에게 공유하고 싶어 지원을 하게 됐고, 열심히 활동해 42서울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sekim

갓 카뎃(42서울 교육생)이 된 앰배서더로서 제가 겪은 42서울에서의 일들과 42서울만의 특징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담아내겠습니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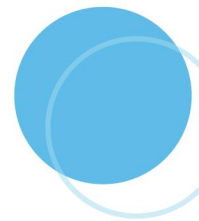
05 주요 일정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주요 일정(하반기) ----- 36

INNOVATION
ACADEMY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주요 일정(하반기)



일 정	추진내용
8 월	10기 2차 1개월 집중교육과정 운영 8차 교육생 체크인 미팅 운영 2023년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학업성취도 향상 부트캠프(창업/사업화) 42서울 소프트웨어 경진대회(해커톤)
9 월	9차 교육생 체크인 미팅 운영 10기 본과정 교육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10 월	10차 교육생 체크인 미팅 운영 하반기 TOPCIT 실시 2023년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10/5) : 5개년 사업성과 발표, 프로젝트 X 소개, 10기 발대식, 성과 공유
11 월	11차 교육생 체크인 미팅 운영 하반기 본과정 교육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시행추진
12 월	12차 교육생 체크인 미팅 운영 42서울인의 밤(교육생 네트워킹)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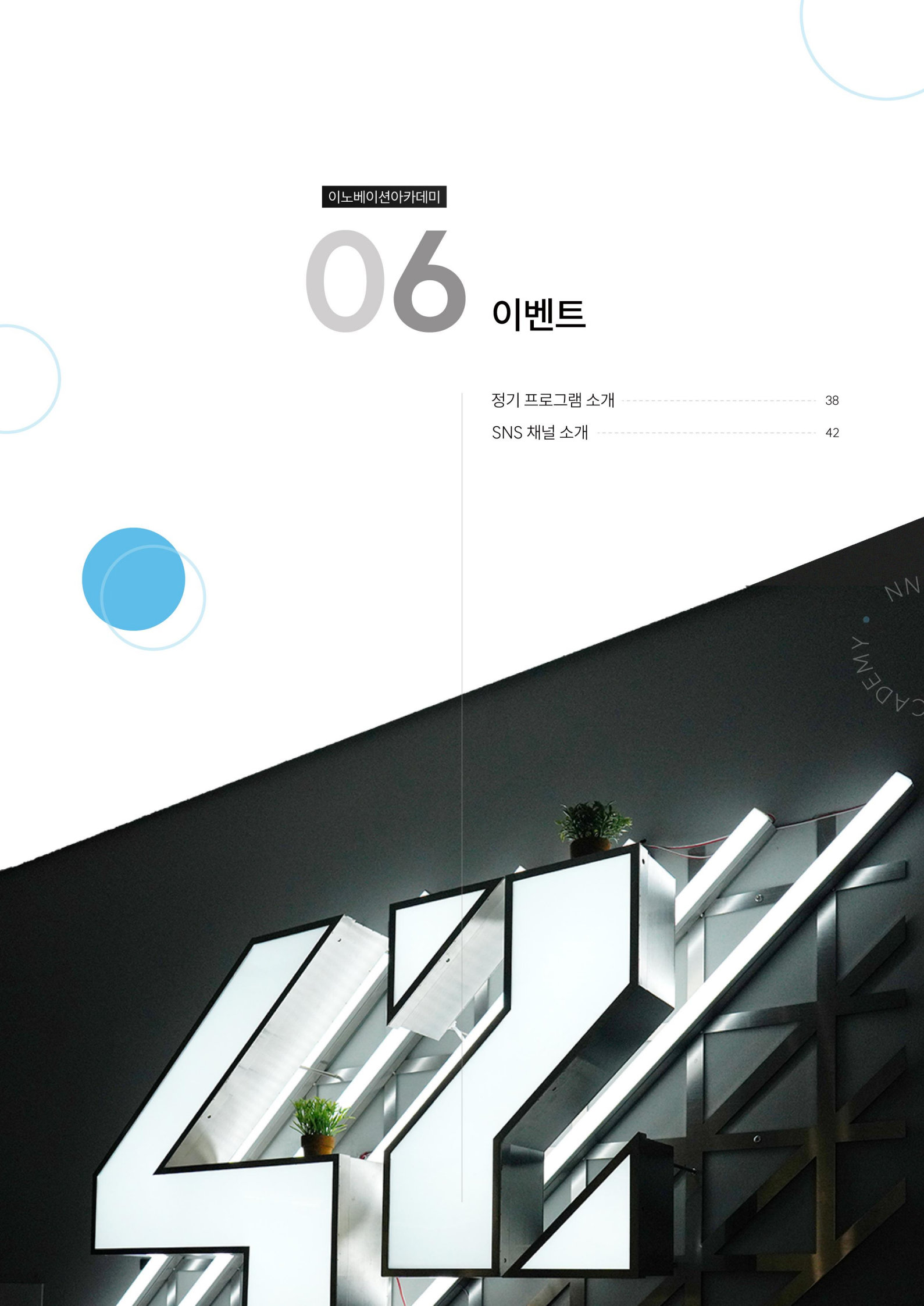


이노베이션아카데미

06 이벤트

정기 프로그램 소개 38

SNS 채널 소개 42



개포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업(기관) 방문설명회

2023년 상반기 이노베이션아카데미에서는 세 차례 기업(기관) 방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세 차례의 방문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기업이 42서울 교육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와 어떤 기업과 기관에서 42서울 교육생들을 만나고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이노베이션아카데미, 교육에서 나아가 채용연계까지

5월10일 수요일에 제1회 방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1차 설명회에는 현대오토에버에서 42서울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와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2021년부터 채용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기업 소개와 프로그램 안내, 채용연계 프로젝트 조직/직무 소개, Q&A 총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된 채용연계 프로젝트 조직/직무 소개 세션에선 7개 조직/프로젝트의 직원들이 각각 조직과 직무를 소개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이 채용연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설명회에 참여한 만큼 교육생들의 많은 관심과 질문이 쏟아진 시간이었습니다. 채용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오토에버에서 더 많은 42서울 교육생들이 꿈을 이루길 기원합니다.



현대오토에버를 소개하고 있는 김하나 책임

아무리 봐도 그 기업엔 42서울 출신이 딱이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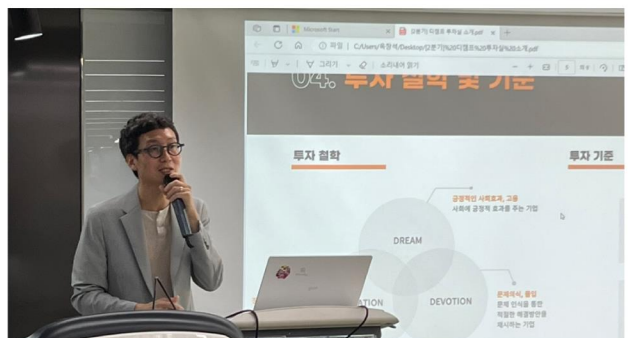
6월29일 목요일에 열린 제2회 기업 방문 설명회에는 어떤 기업들이 방문했을까요? 파수, 비주웍스, 메디칼스탠다드 3곳은 기업 홍보와 채용을 목적으로 방문했으며, 패스트캠퍼스는 교육생 대상 교육 콘텐츠 수강할인 혜택을 설명하러 방문했습니다. 파수는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비주웍스는 초정밀 안과 의료 AI 솔루션 개발 기업입니다. 메디칼스탠다드는 의료 영상 전송 시스템 등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참가한 기업들 모두 기술의 첨단을 달리는 기업인만큼 능력 있는 SW개발 인력 공급이 필요한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은 열정적으로 비전, 필요 역량, 조직문화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 교육생들도 귀를 쫓긋 세워 경청했습니다. 특히 42서울 출신 개발자가 직접 들려주는 조직문화 이야기가 생생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조직문화를 말하고 있는 42서울 수료생과 듣고 있는 교육생들

세상을 놀라게 할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7월20일 목요일 열린 제3회 기업(기관) 방문 설명회는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하 디캠프)에서 방문했습니다. 디캠프는 국내 19개 주요 금융기관이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재단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에게 공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을 제공합니다. 기업 방문 설명회를 통해 디캠프는 기관 소개, 초기 스타트업 사례 설명, 창업을 꿈꾸는 교육생들에게 기관이 가진 데이터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네트워킹과 개별 팀 미팅이 이뤄져 창업을 꿈꾸는 교육생들에게 꿈에 다가갈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42서울 교육생들이 어떤 서비스와 솔루션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 기대해 봅니다.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디캠프 옥창석 팀장

공간안내

새로관은 B1층(지하1층)부터 5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B1



오픈스튜디오 ASSEMBLY

규모 50석 / 대형 빔프로젝트, 전자교탁기능 제공

B1층에는 교육생과 기업들이 모여 다양한 강의와 모임을 할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 ASSEMBLY**가 있습니다.

1F



오픈스튜디오 KERNEL

좌석 50석, 최대 50명 수용, 빔프로젝트, 스피커 지원, 전자교탁기능 제공



42 LAB

1층에는 제휴단체와 학생들이 워크숍, 세미나, 해커톤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오픈스튜디오 KERNEL**과 개인 스튜디오와 그룹 프로젝트가 가능한 공간이자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며 발전하는 공간 **42LAB**이 있습니다.

2F



코딩 스튜디오(Right)



코딩 스튜디오(Left)

학생 및 멘토들에게만 개방되어 있으며 관람시 재단관계자와 동행 필요.



오아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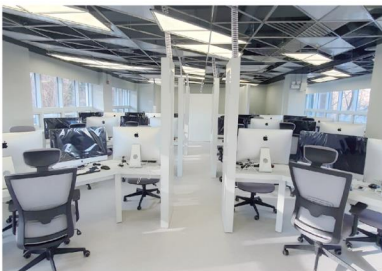
YOUTUBE STUDIO

대기공간 6석, 방음공간 4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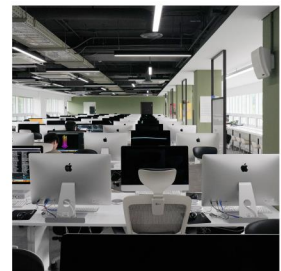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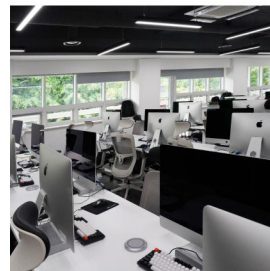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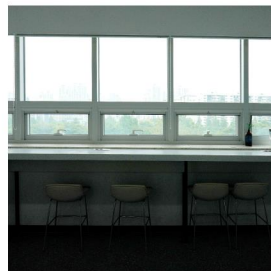
*1층 유튜브 스튜디오는 2023년 말까지 공간 이용 및 공간 예약 불가

2층에는 42 SEOUL 프로그램을 이용해 교육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코딩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캐비닛에 보관하고 시원하게 목도 축일 수 있는 공간인 **오아시스**, 영상 콘텐츠 제작이나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유튜브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촬영 장비와 방음 장치 구비 완료되어 외부인도 사용 가능합니다.

3F



클러스터X



클러스터X는 동료학습이 가능한 공간디자인을 적용하여 교육생들의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새롭게 확장한 교육공간입니다.

4F



코딩 스튜디오(Right)



코딩 스튜디오(Left)



오아시스

코딩 스튜디오와 오아시스로 이루어진 학습 중심 공간입니다.

5F



코딩 스튜디오(Right)



코딩 스튜디오(Left)



오아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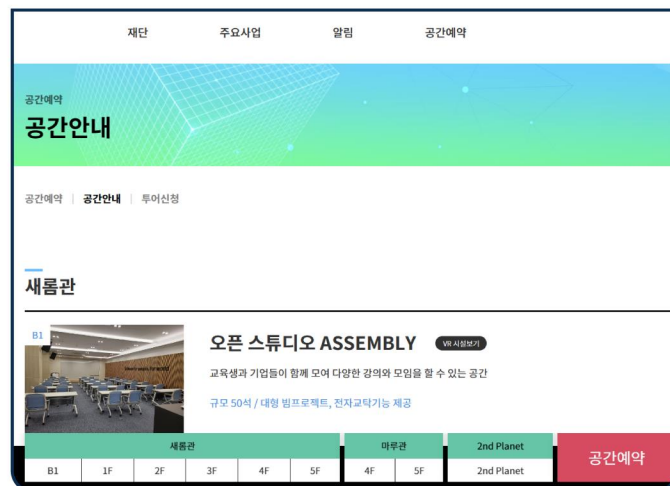
코딩 스튜디오와 오아시스로 이루어진 학습 중심 공간입니다.

PH



옥상 정원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시그니처,
건물 꼭대기에 있는 옥상정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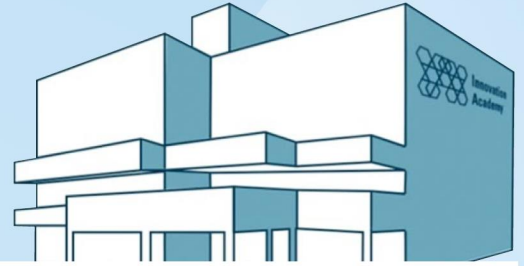


공간 예약을 원한다면? 아카데미 홈페이지로

innovationacademy.kr



2023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투어 안내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과 개발자 생태계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투어 신청

회차별 최대 20명 선착순 접수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홈페이지 > [공간예약](#)

> [투어 신청](#)

*미성년자 신청자는 인솔자와 동행 필요

Innovation Academy	재단	주요사업	알림	공간예약
	재단 소개 연혁 재단 BI 조직도 백서 오시는 길	42 Seoul PROJECT-X 소프트웨어 생태계 지원사업	재단동장 보도자료 공지사항 재용공고 입찰공고 설명회 신청 뉴스레터 신청	공간예약 공간안내 투어신청

프로그램

총 소요시간 약 1시간

시간	프로그램	장소
10분	참석자 확인	새물관1층 안내데스크
15분	재단 및 42서울 소개	새물관B1오픈스튜디오
20분	재단 공간 투어	새물관
15분	- Q&A - 설문조사 및 기념품 배부	새물관B1오픈스튜디오

주의사항

공간 내 교육생과 재단 직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촬영은 금지돼 있습니다.

투어 일정

매월 마지막 수요일 2시 시작 (다른 일정 희망 시 별도 문의)

7월 26일 / 8월 30일 / 9월 27일 / 10월 25일 / 11월 29일 / 12월 27일

신청 방법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해당 월의 투어 신청 오픈

7월 3일 / 8월 7일 / 9월 4일 / 10월 2일 / 11월 6일 / 12월 4일



신청 승인

신청 후 5일 이내 신청 결과 안내
평일 기준 5일 이내 신청 승인과 참석 안내
메일을 드립니다. 안내 사항은 모두 메일을
통해 전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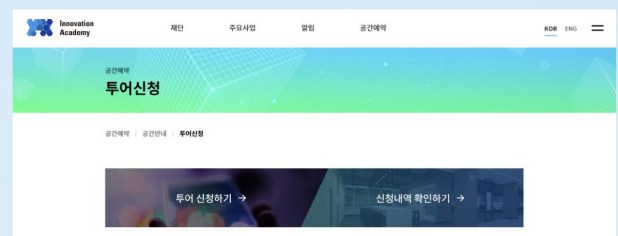
신청 취소

투어일 5일 전까지 취소 가능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홈페이지 > [공간예약](#)

> [투어 신청](#) > [신청내역 확인하기](#)

*신청 취소 없이 불참하실 경우 추후 투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옆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투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NS와 위치 안내



깃랩

<https://github.com/innovationacademy-kr/>



링크드인

<https://www.linkedin.com/school/75512524/>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inno.aca/>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nno.aca/>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dc9wm5wr3d>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NxfExoxj

깃랩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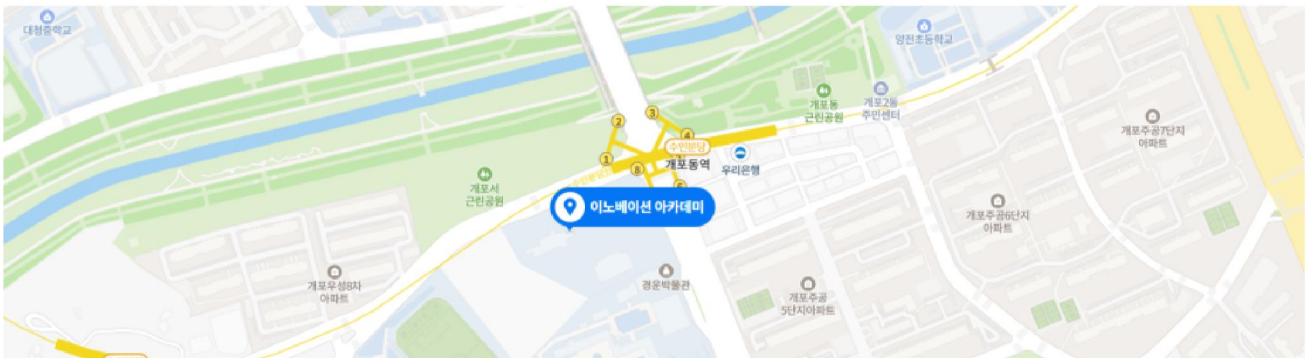
유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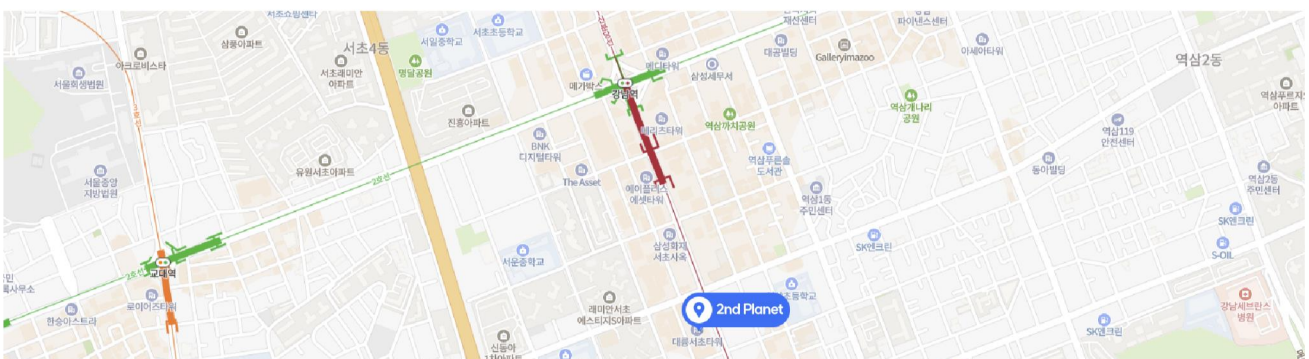
카카오톡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서울 강남구 개포로 416 개포디지털혁신파크



2nd Planet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7 대릉서초타워



2023
Vol.01

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소프트웨어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42서울과 Project-X의 창

문 의

교육 관련 문의
qna
@innoaca.kr

제휴 제안
communication
@innoaca.kr

전화 문의
02 6177 2100

홈페이지

이노베이션아카데미



<https://innovationacademy.kr/>

42서울



<https://www.42seoul.kr/>



Innovation Academy